韓 國 保 健 看 護 學 會 誌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ume 27. No. 2, 293 - 303, August 2013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2.293
중심단어 : 간호대학생,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이 은 경** · 박 진 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첨단의료기술의 발달과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은 생존율의 향상과 만성질환자 비율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역할도 과거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업무수행으로 변화하고 있다(Distler, 2007).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문성이 높은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이론적 지식을 배워 환자에게 적용해봄으로써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임상실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Kim, 2002).

간호학 교육의 목표는 과학적인 간호 지식체를 바탕으로 우수한 임상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데 있기 때문에(Lee & Hahn, 2011),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습교육은 교내실습과 교외실습으로 나누어지는데 교외실습이 이루어지는 임상실습현장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 현장에 연계하여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 배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hin & Cho, 2012). 임상수행능력은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자아인식, 동기부여, 정서적 영향력, 기술과 지식들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행위 또는 효과적인 임상간호의 수행을 의미한다(Lee-Hsieh, Kao, Kuo & Tseng, 2003).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여 실제 대상자에게 간호를 수행하는 기회를 얻고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켜 대상자에게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통합과 조정 과정을 통해(Kim, 2006)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경험하게 된다.

임상수행능력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 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행동, 비판적 사고성향, 이론교육 만족도, 의사소통 기술 및 원만한 대인관계 등을 통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임상실습 만족도이다(Park, Lee, & Gu, 2011; Shin & Cho, 2012; Sung, 2010; Yang, 2009). 임상실습 만족도

* 이 논문은 호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jinns@howon.ac.kr)
투고일: 2013년 4월 22일 심사의뢰일: 2013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8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Jin Ah*
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64 Howondae 3gil, Impi, Gunsan-si, Jeollabuk-do, Korea
Tel: 82-63-450-7762 Fax: 82-63-450-7769 E-mail: jinns@howon.ac.kr

는 학생 교육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나 병원의 분위기와 같은 물리적 실습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간호학과 지원 동기나(Park, et al., 2011), 실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과 같은 내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ark & Han, 2011).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개념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으로 스트레스나 역경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Block & Block, 1980), 대학생으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Luthans, 2002). 따라서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긴장, 인내의 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낯선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성공적 적응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1996). 간호사는 동료 간호사 및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병원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상대해야 하고, 이들 업무의 조정자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자아탄력성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 적응을 포함한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아 어려운 문제에도 긍정적 태도로 자신감 있게 대처하고(Kim & Choi, 2013; Park & Lee, 2011), 학업 적응력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으므로(Park, 2009; Park & Han, 2011) 자아탄력성은 간호학문 적응 및 임상실습 만족을 통한 임상수행 능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대학 재학 중 실습을 경험했던 병원에 취업한 신규간호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Shin, Lee & Lim, 2010) 임상실습에서의 경험은 신규간호사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성공적 적응은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고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소재 전문대학 간호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3개 전문대학 간호과는 2학년 1학기부터 임상실습이 시행되고 있어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2학년과 3학년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으며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수의 표본크기를 효과크기 f^2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5로 산출한 결과 172명이 제시되어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개 전문대학에 각각 80부, 140부, 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9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8.3%) 이중 응답이 편중되어 있거나 불충분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29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개인적 특성과 간호학과 전공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

령, 성별, 학년, 지각된 건강상태를, 간호학과 전공 관련 특성으로는 간호학과 입학동기,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도, 직전 학기 성적, 임상실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을 조사하였다.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외부 문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과 상황 재구성 능력,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 능력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이다(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측정을 위해 Klohnen (1996)의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Park (1996)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감정통제의 4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긍정적 진술문 4문항과 부정적 진술문 25문항의 도구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89였다. 4개의 하위 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능감, 낙관적 태도, 감정통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78, .79, .81, .61이었다.

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arret, & Myrick, 1998). 본 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을 Lee 등(1990)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간호과정 9문항, 지도력 5문항, 간호기술 8문항, 교육/협력관계 9문항, 대인관계 6문항, 전문직 발전 8문항과 자아존중감 10문항의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91이었다. 7개 하위 요인인 간호과정, 지도력, 간호기술, 교육/협력관계, 대인관계, 전문직 발전,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81, .67, .70, .87, .77, .82, .79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각 대학의 교수에게 연구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대학의 전공 교수의 협조를 얻어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전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구두로 설명한 후 연구조사 참여 동의서를 충분히 읽고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한 후 설문지와 소정의 선물을 함께 배부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는 중도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이름 이외의 방법으로 서명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대학의 교수가 없는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에서는 설문 작성에 대한 안내를 마친 후 자율 의사에 의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과대표가 설문지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의 하위 요인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는 여학생으로 조사되었으며 3학년이 60.8%로 2학년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0.9세로 20세 이하가 과반수 이상 이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건강하다는 응답이 53.6%로 많았으며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권유(22.0%), 적성이 맞아서(16.8%), 간호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11.7%) 순이었다. 전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12.7%인 반면 임상실습에 대해서는 19.9%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한다는 응답도 전공은 50.5%인 반면 임상실습은 38.8%로 나타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임상실습에서 간호사와의 관계를 어렵게 느끼고 있었으며(59.1%) 환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10.7%만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2.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자아탄력성 정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91

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SD
Grade	2nd		114(39.2)
	3rd		177(60.8)
Age(yr)	Average		20.9±1.9
	Below 20		159(54.6)
	21-25		116(39.9)
	26-30		16 (5.5)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not healthy		11(3.8)
	Not healthy		37(12.7)
	Fair		87(29.9)
	Healthy		123(42.3)
	Very healthy		33(11.3)
Admission motivation	Employment guarantee		132(45.4)
	Aptitude		49(16.8)
	Overseas employment		5 (1.7)
	High school record		7 (2.4)
	Nurse's good image		34(11.7)
	Recommendation of others		64(22.0)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dissatisfied		8 (2.7)
	Dissatisfied		29(10.0)
	Not so bad		107(36.8)
	Satisfied		126(43.3)
	Very satisfied		21 (7.2)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Very dissatisfied		18 (6.2)
	Dissatisfied		40(13.8)
	Not so bad		120(41.2)
	Satisfied		96(33.0)
	Very satisfied		17 (5.8)
Academic score (full mark=4.5)	Below 3.0		14 (4.8)
	3.0-3.5		78(26.8)
	3.5-4.0		112(38.5)
	Above 4.0		58(19.9)
	Not response		29(10.0)
Difficult relations in clinical practice	No		72(24.7)
	Yes	Nurses	172(59.1)
		Patient	31(10.7)
		Colleagues	16 (5.5)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자아탄력성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자아탄력성은 3.44점(1~5점)이었으며 4가지 하위요인 중 낙관적 태도가 3.6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감정 조절이 3.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임상수행능력도 3.71점(1~5점)으로 평균 이상이었으며 7가지 하위요인 중 교육/협력이 4.0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3.79점, 대인관계 의사소통 3.75점의 순이었으며 리더십이 3.53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2. Degree of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N=291

Variable	Mean±SD
Ego-resilience	3.44±0.45
Efficac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3.29±0.59
Optimistic attitude	3.65±0.53
Emotional control	3.06±0.83
Confidence	3.41±0.51
Clinical competence	3.71±0.33
Nursing process	3.58±0.40
Leadership	3.53±0.56
Nursing skill	3.55±0.44
Education/collaboration	4.04±0.46
Interpersonal communication	3.75±0.44
Professional develop	3.66±0.41
Self esteem	3.79±0.4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F=6.42, p=.002), 전공 만족(F=9.30, p<.001), 임상실습 만족(F=6.72, p=.001), 임상실습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의 유무(t=-4.3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전공 만족(F=5.74, p=.004)과 임상실습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의 유무(t=-3.12, 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4, p<.001). 임상수행능력의 7개 하부요인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는 7개 하부요인 모두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의 4개 하부요인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는 감정통제(r=.09, p=.148)를 제외한 3개 하부요인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고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3.4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2009)의 3.43점, Park과 Han (2011)의 3.46점, 인문사회대학생의 3.55점(Park, 2009), 일반 대학생의 3.44점(Kim & Choi, 2013)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o와 Lee (2010)의 2.91점 보다는 높아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 연령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없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자아탄력성이 서로 유사한 점수로 나타나 연령이 아닌 대학교육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감정통제가 가장 낮고 낙관적 태도가 가장 높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Park, 2009, Park & Han, 2011). 낙관적 태도가 협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방식으로 연결되므로(Park, 200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정통제가 낮게 나타난 것은 환자를 가장 가까이 접해야 하는 간호 업무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임상실습환경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환자와 의료진 등 스트레스 자극이 많으므로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노조절 등

Table 3. The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91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Ego-resilience			Clinical Competence		
		M ±SD	t/F	*p*	M ±SD	t/F	*p*
Grade	2nd	2.78 ± 0.37	1.39	.164	2.97 ± 0.30	-.22	.823
	3rd	2.73 ± 0.35			2.97 ± 0.24		
Age	Below 20	2.79 ± 0.35	2.66	.072	2.96 ± 0.27	1.09	.337
	21-25	2.69 ± 0.38			2.97 ± 0.26		
	26-30	2.79 ± 0.30			3.06 ± 0.28		
Perceived health status	Not healthy [a]	2.66 ± 0.38	6.42	.002	2.95 ± 0.29	2.39	.094
	Fair [b]	2.68 ± 0.33			2.92 ± 0.25		
	Healthy [c]	2.82 ± 0.36			3.00 ± 0.26		
				a,b<c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ied [a]	2.64 ± 0.42	9.30	<.001	2.95 ± 0.29	5.74	.004
	Not so bad [b]	2.66 ± 0.30			2.91 ± 0.26		
	Satisfied [c]	2.83 ± 0.36			3.02 ± 0.25		
				a,b<c			b<c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Dissatisfied [a]	2.63 ± 0.39	6.72	.001	2.92 ± 0.28	3.36	.036
	Not so bad [b]	2.73 ± 0.34			2.95 ± 0.26		
	Satisfied [c]	2.83 ± 0.34			3.02 ± 0.26		
				a<c			
Academic score (n=262)	Below 3.0	2.72 ± 0.25	1.12	.346	2.91 ± 0.24	0.33	.860
	3.0-3.5	2.69 ± 0.37			2.98 ± 0.27		
	3.5-4.0	2.74 ± 0.36			2.96 ± 0.25		
	Above 4.0	2.81 ± 0.35			2.96 ± 0.28		
Difficult relations in clinical practice	No	2.90 ± 0.33	-4.35	<.001	3.05 ± 0.28	-3.12	.002
	Yes	2.70 ± 0.35			2.94 ± 0.26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N=291

Variables	Total Ego-resilience	Efficac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ptimistic attitude	Emotional control	Confidence
			r (p)		
Total clinical competence	.44(<.001)	.38(<.001)	.42(<.001)	.09(.148)	.34(<.001)
Nursing process	.31(<.001)	.26(<.001)	.29(<.001)	.00(.969)	.26(<.001)
Leadership	.18(.002)	.20(.001)	.15(.014)	-.00(.951)	.14(.014)
Nursing skill	.23(<.001)	.27(<.001)	.19(<.001)	.01(.876)	.16(.008)
Education/collaboration	.230(<.001)	.25(<.001)	.24(<.001)	-.05(.444)	.14(.019)
Interpersonal communication	.34(<.001)	.30(<.001)	.32(<.001)	.15(.011)	.23(<.001)
Professional develop	.30(<.001)	.24(<.001)	.30(<.001)	.12(.040)	.21(<.001)
Self esteem	.56(<.001)	.38(<.001)	.57(<.001)	.19(.001)	.48(<.001)

을 통해 감정통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Park (2009)의 연구에서 인문사회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3.55점으로 간호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Park (2009)의 연구 결과 인문사회대학생이 간호대학생보다 학업적응이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적응과 관련된 개념인 자아탄력성이 간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인문사회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측정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71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Jang, Park과 Song (2011)의 3.49점, Park 등(2011)의 3.52점, Shin과 Cho (2012)의 3.45점과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의 하부영역 중 리더십과 간호기술, 간호과정이 낮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등(2011)에서는 간호기술이 가장 낮았으며, Park 등(2011), Shin과 Cho (2012)에서 간호기술과 간호과정이 낮았고, Jang, Han, Lee와 Han (2002)의 연구 결과에서 간호과정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실습교육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도력, 기본간호수행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을 포함한 핵심간호능력 함양을 위한 간호학 실습교육목표가 제시되었으나(Kim, 2006)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환자들의 권리신장과 질적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실습은 관찰 위주와 활력징후와 같은 단순영역의 기술적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간호기술이나 간호과정 등 임상에서의 직접 간호가 제한되어 임상실습을 통한 임상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는 최소화되고 있다(Chaung, 2011; Cho, 2005; Yang, 2009). 또한 환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계획되고 수행되어져야 하는 간호과정은 학생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Shin & Cho, 2012). 최근 이러한 제한된 임상실습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뮬레이션 교육이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면서(Lee, Park & Noh, 2013; Oh, Sun, & Kim, 2009), 많은 대학에서 임상현장실습의 보조적 방안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이 활용되기 시작했고, 간호교육인증 기준에서도 시뮬레이션 실습이 임상실습의 일부로 인정되어 100시간 이내의 시뮬레이션 실습은 임상실습에 포함됨이 명시되었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3). 이에 향후 임상수행능력의 여러 요인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및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실제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의 또 다른 영역인 간호과정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임상현장지도자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한다. 임상현장지도자는 실습현장에 학생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문제에 초점을 둔 자료수집에 도움이 되고 우선순위 결정 및 현재 환자에게서 고려해야 할 문제 등에 대해 시의 적절한 교육과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소규모 그룹의 집담회를 구성하여 사례 중심의 간호과정 적용과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간호과정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 시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에 따라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Chaung, 2011; Cho, 2005; Shin & Cho, 2012), 임상실습 만족도(Cho, 2005; Shin & Cho, 2012; Yang, 2009),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Chaung, 2011; Shin & Cho, 2012)등의 연구에서도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실행전략으로 이론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매체와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임상실습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임상실습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전공 및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요즘 대학생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를 이용한 일방향 대화에 익숙해 있어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동 작업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임상실습 시 동료와의 관계 유연화를 위해 인간 이해와 같은 인문 교양교과목과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 수강을 독려하는 등 교과목을 통한 접근과 함께 동아리나 봉사활동 등 교과 외 활동을 통해 동료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및 동료 의료진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들은 낯선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하므로(Park, 1996), 본 연구 결과는 병원이라는 낯선 실습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아탄력성 향상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탄력성은 시간에 걸쳐 발달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일련의 과정이며 긍정적 적응결과보다는 발달과정에서 변화되고 습득되어지는 역동적 과정(Luthar & Cicchetti, 2000)이므로 간호학과 입학 시부터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지프로그램이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면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2,3학년에는 입학 시 보다 증

진된 자아탄력성을 보유함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이 함께 수반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자는 수업 시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자는 수업시간 외에도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과 잦은 만남을 갖도록 하며,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통해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격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아탄력성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3개도에 소재한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공만족과 실습만족이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성적은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간호학문 분야에 증가하고 있는 남학생의 특성을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나 3개도의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자아탄력성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이 성공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간호대학생의 학교 및 학과 적응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임상수행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수 확인을 위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습현장에서 간호기술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자들을 접함에 있어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부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Barret, C., & Myrick, F. (1998). Ja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2), 364-371.

Chaung, S. K.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1), 71-78.

Cho, H. S. (2005).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2), 222-231.

Distler, J. W. (2007).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competenc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student-centered teaching strategies in an advanced practice nurse curriculu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7*(1), 53-59. http://dx.doi.org/10.1016/j.nepr.2006.08.003

Faul, F., Erdfelder, E., Lang, A.,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Jang, I. S., Han, S. H., Lee, M. J., & Han, M.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health practice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school health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6*(2). 423-435.

Jo, H. I., & Lee, N. Y.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ego-resilienc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Youth Research, 17*(6), 1-20.

Kim, H. S. (2002).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6*(1), 64-76.

Kim, I. S., Jang, Y. K., Park, S. H., & Song, S. H.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7*(3), 339-347.

Kim, J. U., & Choi, M. S. (2013).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achment, ego -resilience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 45-68.

Kim, M. W. (2006). Development of objectives of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2), 389-402.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http://dx.doi.org/10.1037/0022-3514.70.5.1067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3). *Accreditation standards on curriculum in nursing education*. Unpublished manuscript.

Lee-Hsieh, J., Kao, C., Kuo, C., & Tseng, H. F. (2003).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RN-to-BSN students in a nursing concept -based curriculum in Taiwan. *Journal of Nurses Education, 42*(12), 536-545.

Lee, M. S., & Hahn, S. W. (2011). Effect of simulation-based practice on clinical performance and problem solving proc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7*(2), 226-234.

Lee, S. J., Park, Y. M., & Noh, S. M. (2013). The effects of simulation training with hybrid model for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erformance ability and self confidenc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1), 170-182.

Lee, W. H., Kim, J. G., Yoo, J. S., Hau, H. K., Kim, K. S., & Yim, S. M. (1990). A study on instrument development of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Bulletin of Yonsei Nursing, 13*(7), 17-29.

Luthans, F. (2002).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6), 695-706. http://dx.doi.org/10.1002/job.165.

Luthar, S. S., & Cicchetti, D.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857-885.

Oh, S. H., Sun, J. J., & Kim, S. H. (2009). The effect of CPR clinical training i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practical ability.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3*(2), 153-161.

Park, H. J. (1996). *Perceived stress, coping process and depression to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Park, J. A., & Lee, E., K. (2011).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7*(3), 267-276.

Park, M. S., Lee, M. H., & Gu, J. A. (2011).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litary Nursing Research, 29*(2), 111-123.

Park, W. J. (2009).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3), 240-250.

Park, W. J., & Han, J. Y. (2011).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teaching, effectiveness, and family suppor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b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67-377.

Shin, K. A., & Cho, B. H. (201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19*(1), 46-56.

Shin, Y. W., Lee, H., & Lim, Y. (2010).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1), 37-47.

Sung, M. H. (2010).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ti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7*(1). 90-98.

Yang, J. J. (2009).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159-165.

ABSTRACT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Lee, Eun Kyung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ark, Jin Ah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291 juniors and seniors who received clinical training from nursing universities in Gyeongsang, Jeolla, and Chungcheong. General characteristics, main study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correlations between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The mean score for ego-resilience was 3.44; and the mean score for clinical competence was 3.71. The data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the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herefore, to enhance clinical competence, a follow-up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advanced ego-resilience is needed.

Key words : Nursing students, Resilience, Clinical competenc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Howon University.*